

김석범 소설 『과거로부터의 행진』 연구

고 은 경*

- I. 머리말
- II. 파시즘적 전체주의로 인한 주체성 상실
- III. 경계인으로서의 국적 선택
- IV. 트라우마를 통한 현실 재현
- V. 맺음말

국문초록

『과거로부터의 행진』의 주요 사건인 ‘재일동포유학생 간첩 날조 사건’은 유신체제에서부터 신군부 정권에 이르는 한국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경계인으로서 재일조선인들의 모습을 새롭게 탐구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현대사의 비극을 경험한 작중인물의 현재의 삶을 트라우마 등 서사 전략을 통해 그려내고, 이를 통해 작가의식을 상기시킨다.

현재까지 조선적이라는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김석범은 그가 가지고 있는 조국에 대한 신념을 작품에 그려내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에 내포된 작가의 통일 조국에 대한 의식세계는 그의 소설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남한 사회의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만든 국가정보기관은 실상 독재정권과 국수주의의 힘을 빌리고 집단적 의식으로 점철하여 재일조선인 사회에 파시즘적인 행위를 행한다.

김석범은 작품을 통해 이들을 고발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음모와 계략에 도구화된 재일조선인들의 삶과 함께 정체성 탐구와 자아 해방의 방식을 보여

* 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 연구원 (E-mail: kek43peace@gmail.com)

준다. 한국현대사의 일면에서 재일조선인에 경계인의 모습을 탐구하도록 한다. 이 글에서는 작중인물들을 통해 한국 정치사의 일면이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현재성의 관점에서 탐색하고 있는 작가의 시선을 고찰한다.

이것은 『과거로부터의 행진』이 작가 김석범의 제주4·3에 대한 근원적 문제의식을 함축하고 있는 작품임과 동시에, 한국현대사와 재일조선인의 관계를 탐색하는 작가의 고민 또한 공존하고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여, 김석범의 작품 세계를 폭넓게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 김석범(金石範), 집단주의, 재일조선인, 과거로부터의 행진, 제주 4·3, 간첩날조사건

I. 머리말

작가 金石範¹⁾의 문학은 해방 전후에서부터 재일조선인 사회 내의 국적 문제, 남북이데올로기와 제주 4·3사건 등의 역사적 사건들을 형상화한다. 『과거로부터의 행진』²⁾은 2009년 4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일본 월간지 『세카이(世界)』에 연재된 글로, 2012년 이와나미 서점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되고, 2018년에 번역, 출간되었다. 작품은 1970·80년대 한

1) 1925년 출생. 1967년 작품집 『까마귀의 죽음(鴉の死)』을 출간하여 작가로서 데뷔. ‘제주4·3사건’을 소재로 1997년에 완간한 『화산도(火山島)』(전7권)은 오사라기지로(大佛次郎)상, 마이니치(毎日)예술상을 수상하였다. 이 소설은 한국에서도 2015년에 전12권으로 번역 출간되었으며, 같은 해에 제1회 ‘제주4·3평화상’을, 2017년에 제1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이밖에도 『만월(滿月)』, 『땅속의 태양(地底の太陽)』, 『죽은 자는 지상으로(死者は地上に)』 등의 많은 소설이 있으며, 평론으로는 일본어로 집필하는 재일작가의 역할과 그 문학적 방법을 담아낸 『언어의 주박(言葉の呪縛)』과 『민족·말·문학(民族・ことば・文學)』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재일동포의 인권문제와 국적문제, 조국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아낸 많은 작품과 평론, 대담 등이 있다. 김석범, 김학동 옮김, 『과거로부터의 행진』, 보고서, 2018.

2) 이 글은 김석범, 김학동 옮김, 『과거로부터의 행진』(보고서, 2018)을 텍스트로 삼는다. 이후 『과거로부터의 행진』의 본문 인용문은 권, 쪽수만을 표시한다. 밑줄은 인용자에 의함.

국 사회에서 자행된 ‘재일동포유학생 간첩 날조 사건’³⁾을 소재로 한다. 그리고 한국현대사의 정국 속 이데올로기의 대립에서 재일조선인들이 갖는 민족과 국가, 국적에 대한 의미와 혼란에 대해 탐구한다. 현재까지 조선적이라는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작가 김석범은 그가 가지고 있는 조국에 대한 변함없는 신념을 작중인물들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에 내포된 작가의 통일 조국에 대한 의식세계는 그의 소설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과거로부터의 행진』은 김석범의 최근 작품으로 선행연구는 김학동⁴⁾의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소설 『죽은 자는 지상으로』와 『과거로부터의 행진』을 ‘제주4·3문학’과 직접 관련이 없는 非 4·3문학이라는 입장에서 고찰하였다.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재일동포간첩 조작 사건’과 ‘국적 문제를 중심으로 작품을 분석하고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집필 동기 등을 확인하였다. 조국에 의해 수단과 도구로 이용당하는 재

3) 국가권력에 의한 ‘간첩 조작’은 일제 식민시기부터 사용되어 온 공안정치의 한 방편으로 박정희 정권의 유신 체제 이후 1987년까지 가장 만연했다. 1969년 이후 북한의 간첩 남파가 줄어들자 박정희 정권은 간첩을 ‘정책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한다. 사회주의 활동이 합법화되어 있으며 북한과의 내왕의 기회가 있었던 일본 거주 동포, 북한에 납치되어 북한으로부터 사상 교양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납북어부, 해방 정국이나 4·19 직후 민족주의·사회주의 활동 경력을 가진 인사들, 서독에 유학하여 북한이나 사회주의 사상에 노출될 기회가 있었던 유학생들이나 유럽거주 주민들, 한국전쟁기 부역혐의가 있거나 의용군에 징집된 경력이 있던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수많은 ‘간첩 사건’이 조작된다. 이러한 국가권력에 의한 ‘간첩 만들기’는 곧 모든 국민들을 ‘간첩 아닌 사람’으로 처신하도록 만드는 과정, 즉 정치공동체의 테두리 치기, 충성스러운 국민 만들기 과정이며, 간첩 만들기과 동시에 진행되는 ‘국민 만들기’는 ‘정화된 국민’, 즉 사상적으로 균질적이고 복종적이며 선거 외에는 일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국민 양성을 목표로 한 공안통치술이었다. 철저하게 반공국가 내부로 수렴되는 대한민국의 ‘국민화’ 과정은 재일조선인을 비롯한 지리적, 사상적 경계 지역에 놓인 ‘반(半)국민’의 ‘간첩화’ 장치를 통해 활성화되며, 분단체제를 한층 공고화 하는 데 기여한다. 김동춘, 「간첩 만들기의 전쟁정치: 지배질서로서 유신체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1호,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2, 157-159면), 윤송아, 「재일조선인과 분단의 지형학: 서승, 서준식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제73집, 2017, 99쪽 재인용.

4) 김학동, 「김석범(金石範)의 비(非) ‘4·3문학’ 작품과 조국에 대한 애증의 형상화 양상」, 『일본학』 제46집, 2018.

일동포라는 작가의 인식을 토대로 작품이 중앙정보부(KCIA)에 의한 ‘재일동포 간첩 조작 사건’과 ‘국적 문제’ 등 재일동포가 안고 있는 난제를 담아내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과거로부터의 행진』을 집필하는 작가의 원동력은 재일동포를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들의 독재 권력을 안존시키려는 조국의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인식의 뿌리는 김석범이 가진 조국과 민족을 향한 애착을 토대로 한다고 말하며 작품을 통해 통일된 민주 조국의 일원이 되기를 갈망하는 작가의 염원을 저버린 채 인권을 유린해 온 조국의 독재정권에 대한 작가의 분노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논하였다.

본 논문은 『과거로부터의 행진』에 형상화된 주요 사건과 작품에 표상된 재일조선인이 갖는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작품의 주요 사건인 ‘재일동포유학생 간첩 날조 사건’은 유신체제에서부터 신군부 정권에 이르는 한국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경계인으로서 재일조선인들의 모습을 새롭게 탐구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작가 김석범은 현대사의 비극을 체현한 작중인물의 현재의 삶을 서사 전략을 통해 그려내고, 이를 통해 작가의식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이에 『과거로부터의 행진』에 대한 본 논문의 주요 착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는 1970·80년대 한국 독재정권의 실상과 이에 농락당하는 재일동포들의 정치·사회적 현실을 반영한다고 보고, 당시의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였으나, 작품의 끝까지 주요인물들과 대립하여 서술되는 국가정보기관의 행위에 관한 당위성의 거론은 미약하다. 국가 정보기관의 인물의 사상과 행동 양식은 당시의 국가주의에 입각한 민족의 재구성과 집단 의식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그들이 가진 정치 철학에 대한 형성과 모순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1950년대부터 시작된 ‘반공’이라고 하는 지배체제의 계승은 체제의 성립과 정권 확립을 위해 국가 기관이라는 명분 아래 폭력을 수단으로 삼는다. 본 논문은 1980년대가 가진 정치 철학에 대한 모순이

국가 권력기관의 집단주의로 귀결된다고 본다. 『과거로부터의 행진』에서 국가 권력기관의 집단주의는 그들이 작중 인물들에게 행하는 폭압적인 행위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재일조선인이 갖는 국가와 국적변경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김석범은 독재정권에 의해 재일조선인 유학생에게 자행된 고문의 실상과 이후 그들이 겪는 트라우마를 꿈과 이명, 환청과 환각 등으로 작품 곳곳에 서술한다. 그리고 그 트라우마는 작중인물의 회상 속에서 서술되며, 현재를 사는 재일조선인들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작품 전반에 서술된 트라우마의 형상이 내포하는 상징을 살펴보고 이것들의 서술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과거로부터의 행진』을 읽는 다양성의 일면에서 작품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확장 시킬 수 있을 것이다.

Ⅱ. 파시즘적 전체주의로 인한 주체성 상실

『과거로부터의 행진』은 1991년 노태우 정권을 현시점으로 하고, 작중인물의 회상을 통해 1970년대 전반 그리고 1980년대 전두환 시대까지 한국현대사를 배경으로 한다. 그 속에서 국가정보기관으로부터 재일조선인에게 가해진 탄압과 폭력의 실상, 이로 인한 재일조선인들의 정신적 피해함을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작품에 구현된 국가 권력기관의 집단주의를 살펴보고 집단주의의 양상이 재일조선인의 국가의식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은 근대적 인간 창조의 시각으로 국가주의에 입각하여 민족을 재구성하였다. 개인의 인간개조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인간성 창조는 근대화의 목표였으며 이를 위해서 그 내용을 담은 국민교육현장을 1968년에 공포한다.⁵⁾ 그리고 애국적 인간상과 시민의식과

5) “국민교육현장에서 강조된 초점은 창조적 인간, 협동적 인간, 애국적 인간의 형성에 있었다. 창조적 인간이란 우리 선인들의 과학적, 예술적, 문화적 활동

공공의식을 흡수 확대한 인간상으로 제시하는 자신의 정부를 효과적으로 장악하기 위해 중앙정보부(KCIA)를 창설한다. 이 기관을 통해 이념적 차원에서 ‘반공 이데올로기’를 확대·강화하고 멸공 통일을 주장하며 북한과 국내 기회분자의 책동에 의해 불순분자가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것으로 간주, 억압하기 시작했으며, 반공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여 반대세력에 대한 사찰과 규제 활동을 전담·실행했다.

중앙정보부(KCIA)는 박정희 체제 전 기간을 통틀어 체제 유지의 최대 공신으로 무소불위의 권력 기구이며, 최고 권력자의 의지 여하에 따라 무자비하게 고문을 시행할 정도로 유신체제의 성립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들에게 민족은 남한인을 대상으로 했으며, 일본, 북한, 연해주, 중국 등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 혹은 조선인들은 한국의 새로운 민족에 포함될 수 없었다. 이들은 친북한세력과 반(反) 유신세력 및 통일 운동 등 반정부 또는 체제 비판 세력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인권 유린과 여론 조작 등을 행했다.

실제로 1970년대 들어 한국에서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등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한국과 재일동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중앙정보부나 국군보안사령부 등에 의해 영장도 없이 모국 유학생(한국에 유학하고 있던 자이니치 학생)이 구속되어, 구타와 고문 등으로 ‘스파이(간첩) 사건’이 적발되거나 날조된 것이다. 대개의 경우, 그 후 재판에서 유죄가 되어 몇 년 동안 옥살이를 면할 수 없게 되는 등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행위를 일삼았다.⁶⁾

의 본을 거울삼아 우수한 민족의 예지를 서구적 개척 정신과 결부시켜, 진취적이고 전진적인 정신 자세를 가다듬어, 조국 근대화의 성업을 의욕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감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중략...) 협동적 인간이란 민족의 공동생활 속에 면밀히 흘러 온 상부상조의 원리를 생산적으로 조직화하고, 그것을 서구 문화의 능률의 논리와 결부시키고자 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중략...) 애국적 인간상이란 우리 민중 속의 뿌리 깊은 외세에 의 저항 정신과 강인한 민족애를 근간으로 하여 서구적인 국민 국가의 형성 요인이었던 시민의식과, 공공 의식을 흡수 확대하려는 인간상을 말한다.(박정희, 『민족의 저력』, 광명출판사, 1971, 210쪽), 문상석, 「박정희의 염원: 근대국가건설과 인간성의 개조 그리고 신민족 형성」, 『한국동양정치사상학회』, 2011, 7-8쪽 재인용.

박정희 체제가 ‘반공주의’를 정권 안정의 수단으로 내세우고 중앙정보부(KCIA)를 내세웠다면 전두환 군사정권은 ‘안보와 반공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안기부 등의 정보기관을 동원하여 폭력적 정권을 형성한다. 이들 집단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일원으로서 자기정체성을 부여하고, 애국심이라는 미명 아래 폭력을 노골적으로 행한다.

집단주의란 “인간의 집단적 정체성을 자명하게 여기고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이 날 때부터 강력하고 단결이 잘된 내집단에 통합되어 있으며, 평생 무조건 내집단에 충성하는 대가로 그 집단이 개인을 계속 보호해 주는 것⁷⁾을 자명하게 여기는 의식을 말한다. 강력한 내집단의 존재, 내집단의 구속성, 집단에의 충성 등의 자질은 집단주의의 성격을 규정한다. 개인의 목표보다 집단의 목표를, 개별적 자아정체성보다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을 귀중하게 여기고 기본적 사회 단위를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보는 신념 역시 집단주의에 수반 된다.⁸⁾

집단주의는 다음의 신념들을 거느린다. 집단의 목표는 개인의 목표보다 우위에 놓인다. 개인의 독자적 정체성보다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자아정체성이 본질적이다. 사회의 기본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며, 개인은 집단에 속한 종속적인 존재이다. 개인은 집단이 요구하는 다양한 의무를 지니고 규범과의 합치 여부는 개인의 행위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⁹⁾이 된다. 결국, 집단의 가치를 개인의 가치보다 우위에 놓고, 집단의 이익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집단주의의 성격은 『과거로부터의 행진』의 국가 정보기관(KCIA)이 갖는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이 행했던 행위들은 집단주의가

6) 윤건차, 박진우 외 역, 『자이니치의 정신사』, 한겨레출판, 2016, 697쪽.

7) 헤르트 홉스테드 외, 차재호·나은영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정신의 소프트웨어』, 학지사, 2014, 118쪽.

8) 한규석,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의 현황과 그 전망」, 『한국심리학회지:일반』 10, 한국심리학회, 1991, 2-10쪽; 박수현, 「1970년대 사회적·문화적 담론에 나타난 집단주의 연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33권1호, 2014, 156쪽 참조.

9) 박수현, 「1970년대 사회적·문화적 담론에 나타난 집단주의 연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33권1호, 2014, 156쪽 참조.

추구하는 소위 파시즘적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다. 작가는 집단 의식으로 점철된 국가 정보기관의 행태를 재일동포유학생 간첩 날조 사건의 주인공인 한성삼과의 대립을 통해 부각시키고 있다.

한성삼은 1984년 3월 Y대학에 입학수속을 위해 한국에 왔다가 갑작스럽게 KCIA¹⁰⁾의 후신인 안기부¹¹⁾에 연행되어 억류되었고, 고문 후유증을 갖고 살아가는 재일조선인 2세이다. 한성삼은 10년 전 도쿄의 대학 입학 당시 재일 한학동(韓學洞)¹²⁾과 관계가 있다는 점과 김일담과의

-
- 10) 중앙정보부(中央情報部, Korean Central Intelligence Agency, 약칭: 중정, KCIA 또는 정보부)는 대한민국의 특별 행정기관이자 정보, 첩보,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었다가 1962년 3월 정부의 직속기관이 되었다. 설립 초기에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산하기관으로 활동하다가 내각 직속기관이 된 후 초기에는 주로 수사 업무와 경찰, 검찰을 지휘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서서히 대공, 정보 수집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였다.
- 11) 국가안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 약칭 안기부). 1980년 4월 중앙정보부장 서리로 겸직 취임한 전두환 국군보안사령관은 취임 직후 중앙정보부를 정비·축소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중앙정보부를 확대·개편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가 발족했다. 안기부는 도적으로 모든 정보 수집 및 정부 통제의 중추기관으로 정보 독점을 기반으로 국가의 중요 정책 결정 집행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등 핵심 권력기관이었다. 또한 중앙정보부보다 대공, 대북, 방첩업무와 정보 수집 업무가 강화되었다. 이후 감청 의혹 사건 등으로 논란의 대상이 됐고, 1999년 1월 김대중 정부는 작고 강력한 정보기관을 지향하면서 안기부를 국가정보원(NIS)으로 개칭했다.
- 12) 한학동: 해방 직후 조직된 <재일조선학생동맹>은 조국의 분단을 전후로 좌우 대립이 격화되어 1949년 5월 총회로 분열된 후에 우파는 1950년 <재일한국학생동맹>이라 칭하며 민단의 산하 조직이 되었다. 한국전쟁 때는 '재일한국자위군'에 학도병을 지원시켜 전선으로 보냈으며, 1952년 총회에서는 임시수도 부산에서의 이승만 정권의 강권정치('부산 정치파동')를 비판하고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서 한국에 전달함으로써 본국 내에 파문을 일으켰다. 1961년 5월 박정희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자 재빨리 '반군부 쿠데타 성명'을 발표하고, 군사정권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후 한국 학생혁명(1960)의 이념을 기본정신으로 한일회담 반대운동, 입국관리법 반대운동, 민단 민주화운동 등 재일동포 권익 옹호를 기반으로 본국의 민주화와 민족통일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1972년 7월 민단은 한학동의 산하단체 인정을 취소하여 사실상 추방했지만, 한학동은 이후에도 한국, 민단 차원에서 한국 군사정권 반대, 본국 학생운동 지원·연대를 표방하는 활동을 자체적으로 계속했다. 중앙총본부(도쿄) 외에 교토, 오사카, 효고, 도카이에 지방본부가 있으며, 각 대학 <한국문화연구회(한문연)>는 그 지부에 해당된다. 2009년 현재 교토와 효고에서 활동하고 있다. 기관지로 『한국학생신문』이 발간되고 있다. (국제고려

관계에 대한 의심을 받아 정보부의 직접적인 심문을 받는다.

작중인물 한성삼의 고문 과정에서 그에게 고문 폭행을 가하며 내뱉은 정보기관과 한성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가진 집단적 의식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이야기하게 하기 위해서는 당시 남한 사회가 가진 반정부, 반국가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흐음, 반한국, 반국가활동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너희들의 활동은 반체제, 반정부였는데, 정부와 국가는 다르다는 것인가. 핫하하, 그렇잖나, 유토피아론 아닌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한학동은 모국 유학을 지향하고 있는 교포 자제들을 위해 조국의 풍습과 한국어를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강습회, 서클 등을 조직, 그곳을 거점으로 한국에 침투시킬 공작원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상, 233쪽)

“흐음, 여기에 불려온 이유는 알았다고? 네가 과거 일본에서 반국가활동을 한 게 이유라는 걸 알았다는 거지.”

“예.”

순간적으로 반국가가 아니다, 반정부활동이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대답하려 했지만, 상대를 자극하는 것이 두려워 그만두었다. (...중략...) “대한민국 국민은 설령 일본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김일성과 그 지지자들에 대해 철저하게 싸워야만 한다. 그것이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라는 것이다. 너희들은 김일성주의자 놈들에 동조하여 반국가활동을 해왔다. 그 증거가 이거다!” (...중략...) (상, 272-273쪽)

중앙정보부는 과거 한성삼의 한학동 활동을 근거로 그가 반정부와 반국가 활동에 가담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성삼은 자신의 한학동 활동은 제일의 입장으로서 민족 주체성과 민족적 양심에 따른 활동으로, 각 대학에서 우리말과 한국문화 연구의 서클 활동이었다고 전하며, 반한국, 반국가활동은 절대 없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성삼의 발언은 중앙정보부의 국가와 정부가 같다고 하는 일체론에 더 힘을 실

학회 일본지부 『재일코리아 사전』 편집위원회, 『재일코리아 사전』, 2012/ 김창후, 『(재일제주인센터 연구총서 3) 4·3으로 만나는 자이니치』, 진인진, 2017, 27-28쪽.

어주는 계기가 되고, 한성삼은 완전한 반국가 활동가이며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낙인된다. 수사관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 생존의 자유를 확보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국가보안법을 들어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일체임을 강조한다.

‘자서전’의 작문으로 경력, 개인사를 더듬어가면서 수사관이 원하는 대로 반한분자로서의 활동을 자인하고 ‘자백’시키는 것이 목적이지만, 빨갱이-간첩으로 날조할때까지 이렇게 긴 시간 같은 일을 반복시키는 것이 고문의 소프트판, 피를 동반하지 않는 사디즘이다. (상, 250쪽)

“한성삼, 네가 여기 남산에 온 것은 사악한 북괴 흑백사상을 씻어내고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유일무이한 조국에 충성을 다하는 인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다. 그것이 본관의 임무이자 책임이다.” (상, 298쪽)

한국과 일본의 ‘의식’이라는 말 사용법의 차이, 뉘앙스의 차이를 알게 되었지만, 이걸 한국 정부의 말의 조작, 그들이 ‘의식’의 내용을 그와 같은 정치적 의미로 조작해서 만들어 버렸다. ‘의식’, ‘사상은 위험인물이 사용하는 단어. ‘의식’은 모두 ‘공산주의적 의식’으로 연결된다. (...중략...)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가 되고, 모든 것이 반한, 반국가적 사상, 의식으로 연결되어 간첩 성립의 재료가 된다..... (…중략…)

KCIA가 의도하는 대로 쓰는 진술서. 그 의향에서 벗어나면 구두에 맞춰 받을 꺾어내기 위한 제재가 시작된다. (상, 286-287쪽)

그리고 국가와 정부의 분리론을 내세우고 있는 한성삼에게 한학동의 활동 성격을 반정부, 반권력만이 아니라 국가보안을 해치는 반국가단체로 명기하도록 지시했다. 이 같은 과정에서 중앙정보부는 수많은 폭력과 권력에 의한 폭력적 지배방식을 서슴없이 행하였다. 작가는 파시즘적 전체주의의 흐름 속에 진행되고 있는 국가 폭력의 상황이 개인의 사상이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점을 서술한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의식화는 반한, 반정부라는 등식으로 의식분자는 공산주의사상의 의식분자로 만들어낸다.

당대의 파시즘적 전체주의가 지향하는 정치적 담론은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이후 남한 민중들을 국민으로 통합하기 위해 북한을 ‘민족’에서 배제하고 남한만이 ‘민족’을 전유함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구축된 중앙정보기관은 그들이 가진 집단적 의식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경계에 있는 재일조선인들을 간첩으로 만들어낸다. 그들은 국가가 부임한 자신들의 임무와 책임이라는 미명 아래 재일조선인들을 반공 국가 구성 과정에서 이데올로기를 분열시키는 존재로 만들기 위한 은폐와 조작을 자행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낸 간첩담론을 통해 그들이 자행한 물리적 폭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 것이다.

즉, 당시 국가 정보기관을 통해 남한 사회가 한성삼에게 적용한 반정부, 반국가의 의미는 냉전적 사고를 반영함과 동시에 ‘조선=북한’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남한 체제만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석범은 위와 같은 그들의 집단적 의식 중심에서 국가 폭력에 희생당하는 재일조선인들을 통해 국가에 대해 좌절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연유를 내포하여 당시의 비극적 현실을 짙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과거로부터의 행진』은 현실 정치적 상황에 밀착된 소설 전개를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작품에 나타난 정치의식과 사상이 가지는 특징, 그로 인한 작가의식을 규명하는 것은 의미 있을 것이다. 당시의 집단주의는 국가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그들의 권력은 물리적 폭력이라는 측면에서 유례없는 강도와 무자비함을 특징으로 삼아왔다. 이에 김석범은 작품 속 한성삼을 80년대 집단적 의식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로 형상화하여 재일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과 개인의 붕괴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경계인으로서의 국적 선택

『과거로부터의 행진』은 작중인물 고재수와 한성삼 그리고 김일담을 통해 조선적과 한국적 그리고 재일조선인의 정체성과 국적변경에 대한 작가의 담론을 볼 수 있다. 작품에서 김석범이 서술한 국적의 문제는 작중인물들을 통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조선적¹³⁾인 고재수는 재일조선인 2세로 조선적에서 작품 말미에 최종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인물이다. 그는 과거 총련 조직의 간부였던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 1991년 10월, 조선적인 채로 여권도 없이 한국, 제주도에 입국한다.

그러나 제주공항에서 밀입국이 발각되어 체포되고 서울에서 날아온 남산 간부의 심문을 받게 된다. 고재수는 자신이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 용의로 남산에 연행될 줄 알았으나, 다음날 바로 석방되어 불법 입국에 의한 강제송환 형태로 일본으로 돌아온다.

난 제주도인. 일본인이 입국할 수 있는데 왜 내가 갈 수 없다는 것인가. 내가 내 나라에, 고향에 가는데 왜 허가서가 필요한가. 입국허가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법’이나 ‘제도’일 뿐 정의는 아니다. 고재수는 한국에 가는 일의 정의는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한국 측의 고재수에 대한 입국허가는 일본이 관여할 일은 아니다. 한국과 고재수의 문제다. 나는 한국에, 제주도에 가기 위해 일본을 떠난다. (상, 18-19쪽)

고재수의 고향 입국은 단순히 부모와 함께 자신의 고향에 성묘를 가기 위한 것이었다. 제주공항의 입국심사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13) 朝鮮籍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이 아니다. 1947년 외국인등록령이 제정되었을 때 한반도에 아직 국가가 수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증의 ‘국적’란에 편의상 조선반도출신, 조선인이라는 의미에서 ‘조선’이라고 표기했다. 그 후 한국수립과 한일수교로 일본에서 한국국적이 정식으로 인정되었는데 그 후에도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던 사람은 이 ‘조선’이라는 표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이성, 「재일코리안의 현황과 미래」, 『통일인문학논총』 제52집, 2011, 280쪽.

체포될 것이라는 각오를 하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정치 목적을 가지고 입국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입국에 대한 불법성은 없다고 생각했다. 그가 조선적인 이유는 가족, 의리, 신념, 가치의식, 생활의 수단과 존립의 근거 등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에게 국적은 법이나 제도로만 규명된 것일 뿐이었고, 이는 고재수가 남북한이 없는 한반도 즉 한민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국적을 인식하고 있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그가 가진 국적의 의미는 재일조선인에게 국적이 남북한 어느 한쪽 나라에 한정하지 않고 주국으로서 한반도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형성된 광범위한 관점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강제송환만으로 그친 것에 고재수는 최근 『논계』를 통해 한국 정부 관련자들이 재일을 근거지로 한 일대 간첩 사건의 날조를 고발한 김일담¹⁴⁾과의 만남을 통해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다. 두 사람은 전보다 나아진 90년대 대한민국의 정세를 논하며 강제송환에 대한 의문을 품긴 하지만 이상함만이 남은 뿐 명확한 답을 찾기는 어려웠다.

고재수에게 행해진 한국 불법 입국과 관련하여 하루 만에 석방되고 송환된 대한민국의 관대한 조치는 한 달 후 한국대사관에 새로 부임한 장만규 부총영사의 등장으로 그 의문이 용해된다. 사실 고재수는 관할 영사관에 사전 연락도 없이 불법 입국을 한 일 때문에 담당 영사에게 국적 변경의 압박을 받았었다. 그러나 고재수는 강압적인 관할 영사관의 태도에 그에 대한 답에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후 일본·오사카의 영사관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고 자신에게 전화를 건 장 부총영사가 한달 전 제주에서 자신을 취조 했던 국가정보기관의 남자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무사 강제송환과 국적 변경이 연결되어 있음

14) 김일담은 작품 속 작가의 분신으로 고재수가 말하는 『논계』는 김석범이 자신과 관련된 간첩단조작사건에 관해 쓴 「권력은 스스로의 정체를 폭로한다(權力は自らの正体を暴く)」(『世界』, 1991.4)을 말한다. 김석범은 자신이 북한과 직접 연결된 간첩 과수로 조작된 '간첩망조직도'를 들어 이러한 간첩조작사건에 자신이 연류된 것은 한국정보당국에 의한 일종의 복수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간첩단조작사건을 작품에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김학동, 앞의 논문, 2018, 146-147쪽 재인용).

을 알아챈다.

고재수는 총련 조직의 엘리트층 출신 인물이기에 그의 무죄 석방은 조선대학교 동기생들에 대한 공작을 염두해 둔 정보기관의 포석이었으며, 자신은 공작 대상이었던 것, 그리고 자신의 국적 변경이 바로 남산에 의한 공작의 결과인 것이다. 결국 작가는 국적을 초월한 혈통주의에 입각하여 재일조선인을 포섭하고 귀속 의지를 장려하고자 하는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회유정책이 지속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 것이다.

한국 국적의 선배이신 한성삼 씨. 조선적에서 한국적으로 ‘국적’은 다르지만, 같은 민족, 한겨레라는 것으로 자신을 얼버무리며 위로합니다. 재일로서의 한국 국적이고, 당연히 본국인은 아닙니다. 그것이 재일의 조건입니다. 한국국적을 가진 인간으로서 할 일을 하겠습니다. 4·3의 길을 찾는 것도 그 일환입니다. 앞으로 도교에 갈 때는 미리 연락을 드려 만나 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하, 348쪽)

강제송환으로 하루 동안 체재했던 제주도를 떠날 때 다음의 입국을 위한 국적변경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었던 고재수는 조선적을 한국적으로 바꿀 생각을 하고, 그는 자신의 국적 변경에 대한 이유를 정체성 문제로 확고하게 인식한 면모를 보여주며 결국 한국 국적을 취득해 한성삼에게 알린다. 이는 ‘남한도 ‘북한’도 아닌 한반도사람이라는 뜻으로의 민족적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고재수에게 현재의 재일에게 국적이란 앞을 향해 나가는 의미가 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작품은 고재수의 국적 변경을 통해 재일을 사는 조선인들에게는 제도로서만 존재했던 국적의 의미가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는 일차원적으로 볼 수 없는 중요한 의미임을 전달하고 있다.

고재수의 국적변경 선택에 대한 편지를 받은 한성삼은 자신을 ‘한국 국적의 선배’라고 표현한 데에서 거부감을 느낀다. 자신은 간첩날조사건의 피해자이며 자신에게 국적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성삼에게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라는 데서 오는 굴

욕감과 패배감은, 같은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는 다른, 의지에 의해 한국 국적을 취득 한 고재수의 행위가 거부감으로 나타는 것이다.

한성삼은 왼쪽 볼의 찢어진 상처를 다섯 바늘 꿰매고 이틀간을 치료실에서, 보행이 가능해진 뒤로는 3층의 한 평반 정도되는 독방으로 옮겨져 며칠을 보냈다. 그 사이에 고문은 없었고 진술서를 쓰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금번, 조국 대한민국에 용서받기 어려운 반역행위를 한 자신이 당국의 관대한 조치로 갱생의 길이 열린 것에 충심으로 감사, 앞으로는 사악한 북괴의 흑백사상으로부터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고 공산주의 침략에 대항해 싸울 것이며, 조국 대한민국의 충성 국민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있었던 일을 일체 입 밖에 내지 않는다는 함구령이 내려졌다. 진술서에 서명. 손도장. (상, 303-304쪽)

무소불위의 권력 아래에서 충성 국민을 맹세한 그에게 한국적 취득은 자신을 패배자라고 낙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작품은 국적 선택에 있어 고재수와는 상반된 한성삼의 모습을 그린다. 이는 당시 국가 정보기관에 의해 국적을 강제 전향해야만 했던 재일조선인이 느끼는 위화감과 그 속에 고립된 개인의 정서를 부각 시키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재일의 조선적은 원래 국적과는 관계없이 전후의 일본 정부가 재일조선인이 일본 국민이 아님을 증명하는 기호로서 제정한 것인데, 그것이 이후의 남북 분단정부 수립에 의해 민단체를 중심으로 조선적에서 한국적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처음부터 한국적이 별도로 있었던 게 아니다. 한국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박사논문의 자료수집이라 해도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현실이 한심하다. 남·북, 어느 쪽인가의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이 역겹다. (하, 221쪽)

위의 인용문은 한성삼이 쓰고 있는 <부활>이라는 소설의 일부분이다. 그 소설 속 인물 陳은 조선적을 가진 인물로 ‘북’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한국 유학을 바라는 인물이다. 그러나 인용문처럼 ‘남과 북 어느

쪽인가의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황이 역겨우며' 재일조선인 2세인 자신을 바라보는 동정의 시선에 대한 저항감이 있다. 반면 김운배는 한성삼과 상황이 비슷한 인물이다. 김석범은 같은 재일조선인 2세대에서도 국적이라는 벽 앞 김운배와 陳과 같은 선택과 상황이 일어나고 있음을 한성삼이 쓰고 있는 소설로 표현하고, 한성삼이 갖는 심적 패배감에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작품 속 한성삼은 재일의 존재인 자신이 일본인이 아니라는 민족적 자각을 강하게 가진 인물로 그려진다. 그에게 조선적이라는 국적은 일본인에 편승한 자신이 아니라 분단 이전의 한민족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산의 고문에 끌려간 한성삼에게 대한민국에서 정의한 국적이란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조선적이 아닌, 한국 국적이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 조선적과 민족 정체성을 일치시켜왔던 한성삼에게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조선적'을 말소시키는 남한 정부의 폭압적인 과정은 '사상적 변절'을 강요당한 것과 같은 굴욕감을 주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성삼은 7년이 지난 1991년에 도쿄의 대사관 영사 및 오사카 부총영사로 부임해온 추성준과 장남규, 즉 자신을 고문한 남자들로부터 만나자는 전화를 받는다. 이들은 한성삼을 이용해 김일담을 포섭·회유하려는 목적¹⁵⁾의 최종 성공 여부를 위해 한성삼을 다시 찾은 것이다. 한성삼은 과거 수사관들과의 만남 전에 김일담과 만남을 자처한다. 그리고 김일담의 지시에 따라 학원침투 공작을 위해 한국으로 입국하여 자신을 간첩용의자로 인정한 날조된 간첩 사건의 일을 고백한다. 항상 국적 변경에 대한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타협을 허락하지 않았던 김일담의 사상에 감복해 오던 그는, 한국 정부의 날조된 서류에 김일담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목숨을 구한 자신을 용서받고자 한 것이다.

“.....복수, 복수? 한 군이 복수를 생각하고 있다고? 무슨 복수 말인가?”
 “남산에 대한 것입니다.”

15) 김학동, 앞의 논문, 2018, 151쪽.

(…중략…)

“예-, 84년 당시의 일입니다만, 남산에서의 열흘이 지나고 석방된 날 심야에 신촌 하숙집 대문 앞에 자동차로 버려졌습니다. 전 남산에 굴복한 인간입니다만, 일본에 돌아올 때까지의 열흘간 저는 완전히 폐인이었고, 서울을 빠져나올 기력이고 뭐고 전부 사라진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인간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든 한국에서 빠져나가야겠다는 일념이 잔불 처럼 내부에서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절망적인 허세였지만, 복수심과 증오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기력함을 극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는 지난날의 공포와 절규의 기억이 증오와 복수심을 갉아먹고 있었지만, 그래도 살고 싶다, 한국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일념을 복수심이 지탱해주었습니다…….” (하, 38-40쪽)

한성삼은 일본으로 돌아와 지내는 동안 스스로 과거를 잊으려 했고, 일부러 기억 저편으로 밀어낸 채 생활했던 자신을 발견하였다. 과거 고문의 폭력으로 내상을 입은 그는 한국 정부를 향한 복수심을 힘으로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한성삼은 고백을 통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자신과 연결된 구 중앙정보부 수사관과의 관계는 절대 잊고 있지 않았음을 인정하게 되고 지난 7년간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 것이다. 한성삼은 김일담에게 자기 고백을 함으로써 과거의 절망에서 탈출하고자 했으며 과거로부터 나아가고자 하는 홀로서기를 시도하며 주체적인 삶의 갈망에 다시 한번 불을 지핀 것이다.

“……난 북한 지지도 아니지만, 남산에서 강제로 주입한 주문을 모토로 재일로 사는 것은 사양하겠어. 그들은 이 말을 구실삼아, 절대충성을 구실로 뭐든 할 수 있지. 이 주문 앞에서는 살인도 예사고, 살인이 충성. 그리고 절대충성이 아닌 것은 비국민, 국가반역. 제국호텔에서도 비국민이라는 말을 들었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거겠지. (…중략…)” (하, 322쪽)

하지만 한국민을 그만두는 이상, 일본 국민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정말이지, 이렇게 재일은 일본 사회의 차별만으로도 지켜운데 조선적이라든가 한국적이라든가, 총련과 민단은 적대시하고……. 그래도 재일은 살아가고 있어. 한성삼이 말이죠. 한국민을 그만두고 조선적이 된다고 세간에 알려지면, 조선총련은 크게 기뻐할 거야. 조선신보 등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할 텐데, 당신은 절대로 취재 등에 일체 응해서는 안 돼……. 바보 같은 소리는 그만해. 내 조선적은 총련이나 조선계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래도 그렇게 이용될 거예요……. (하, 368쪽)

“영사님, 아니, 영사님이 아니라, 장만규 부총영사님, 전 여기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그만두는, 국적 이탈을 선언합니다…….” (…중략…) “이유……? 예-, 이유보다 제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가 없고, 대한민국 국민이 싫어서 그 국민이기를 그만둡니다.” (…중략…)

“(…중략…)그래요, 비대한민국 국민. 난 조선적도 북한도 아니고, 북한 지지도 하지 않습니다. 북과도 남과도 관계가 없어요. 전 한국 국민을 그만두고 외국인등록증을 조선으로 변경할 겁니다. 제 자신의 자유를 위하여!” (하, 409-412쪽)

자기 고백을 통한 한성삼의 내적 변모는 그에게 상실했던 주체성을 부여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고문했던 중앙정보부와의 만남 자리에서 조선적으로에 국적 변경을 선언한다. 자신이 조선국적으로 바꾼다면 조총련의 웃음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조선적이 국적은 아닐지라도 자신들의 체재를 선전하는 데 이용될 것이라는 가족의 우려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¹⁶⁾ 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체적인 결정으로 국적을 선택한 그의 모습에서 국적 문제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작품의 결말에서 위와 같은 한성삼의 변모를 그린 것은 국적 선택에 대한 작가의 자유의지를 재표명하는 의미와도 같다. 김석범이 재일조선인들이 살아가는 근거로서의 통일론을 말하며 조선적으로 사는 이유는 주체적인 결정에 의한 것이며 그 모습을 한성삼에게 투영한 것이다.

김일담은 작가의 분신으로 통일 조국을 지향하는 재일조선인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통일 조국을 지향하는 재일조선인들은 분단된 남과 북은 자신의 완전한 조국이라 인정하지 않으며 분단 전의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다. 작가는 김일담을 통해 조선적의 근거가 되는 국가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현재의 재일조선인들의

16) 김학동, 앞의 논문, 2018, 151쪽.

사상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말이지, 난 조선적을 고수하겠다는 생각은 없네. 난 당연하고 자연스런 일이야. 나의 경우는 조선적과 총련 조직은 관계가 없어. 무슨 총련이라든가 북쪽의 공화국을 생각해서 조선적으로 있는 게 아니야. 만일 그게 같은 것이라면 난 바로 조선적을 그만둘 거요. (...중략...) 조선적, 재일에게는 실체가 없는 픽션. 일본 정부에 의한 기호. 김일담에게는 사상으로서의 기호 (하, 242쪽)

위의 인용문은 국적에 대한 김석범의 생각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김일담은 자신을 조선적을 고수하는 사람으로 인식하며, 국적변경에 대한 결정을 알리는 고재수에게 조선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확고히 하며 말한다. 한국정부가 말하는 조선적이 곧 총련은 아니며 자신에게 조선적이란 ‘사상으로서의 기호’라며 못 박는다. 김일담은 실체가 없는 조선 국적은 하나의 기호라고 말하며 추상화된 ‘사상’으로 인식하게 한다. 이는 작가 김석범에게 조선 국적이 남북 분단을 부정하고 통일을 요구하는 사상의 표출이 투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남북 분단의 고정화라는 조건 속에서 김석범은 끝까지 조선적을 고수하고 한국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한다.¹⁷⁾ 따라서 김일담을 통해 현재까지 조선 국적을 고수하는 작가 김석범의 심경을 대변하고 있다. 작가는 남과 북이 아닌 자신의 입장에서 무국적으로 경계인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왜 ‘국적’ 하나로 우리들은 이렇게도 고뇌하거나 휘둘러야만 하는 걸까. ‘국적’이라는 이름 아래 인질로 잡혀 있는 거지. 권력이야. 정치..... ‘국가’라는 이름의 권력.”(하, 285쪽)

작가는 이들의 국적 고민에 대해 ‘국적’이라는 틀 속에 ‘인질’로 잡혀 있다고 말한다.

17) 윤건차, 박진우 외 역, 『자이니치의 정신사』, 한겨레출판, 2016, 616쪽.

이는 재일조선인들의 국적 고민에 대한 근원이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시작됨을 주지시키고 국적 문제에 대해 시달릴 수밖에 없는 재일조선인들의 애환을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재일조선인들에게 국적 문제는 그들의 일상생활을 좌우할 만큼 큰 고민거리였다. 이들에게 국적 문제는 개인의 정체성 확립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일조선인 1세는 직접 전쟁과 戰後의 차별을 경험한 세대라면, 재일조선인 2세는 조국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재일조선인’으로서 사회의 차별과 투쟁 해온 세대라고 할 수 있다. 『과거로부터의 행진』 속 ‘한성삼과 ‘고재수’는 위와 같은 재일조선인 2세를 대표하는 인물로 이들을 통해 민족성은 무엇이며 개인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IV. 트라우마를 통한 현실 재현

『과거로부터의 행진』에서는 작가의 의도적인 서사 전략을 통한 작가의 염원이 서사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그것을 현재의 시점에서 작중인물이 겪는 트라우마와 환청 등의 현상으로 찾아볼 수 있다. 한성삼이 겪는 고문 후유증은 고문 경험의 상처가 후대까지 이어지는 트라우마의 현재성에 천착한다는 점에서 작품의 서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숲으로 둘러싸인 가을 별판의, 눈처럼 쌓인 노란 낙엽 위에서 한 마리의 개가 숲의 남자에게 쫓기며 곤봉으로 얻어맞고 있다. 숲 속으로 도망치지도 못한 채 멍, 멍 짓을 뿐이고 피 같은 땀을 흘리며 그저 계속 얻어맞고 있다. 먼 시공에서 지금 본 광경이지만, 깊은 늪에서 머리를 들어 올리고 몸부림치며 기어오르다가 눈을 뜬 몸이 경직되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어제의, 그 이전의 옛적 고문의 후유증이였다. (상, 305쪽)

과거 재일조선인유학생 간첩 날조 사건과 연관되어 국가정보기관의 고문을 받은 한성삼은 고문 중 수사관의 구둑발로 얼굴의 살점이 떨어

저 나가는 경험을 겪는다. 그는 국가 권력에 굴복하여 충성 국민을 맹세한 자신의 모습을 개에 비유하며 자책한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한성삼의 고문 후유증은 그가 겪는 트라우마로 나타나 그를 괴롭혔고 과거의 흔적이 끊임없이 표면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가 가한 고문에 대한 개인적 경험으로써의 고통을 적나라하고 처절하게 직시하도록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트라우마란 개인이 생활 속에서 겪은 사건에 의해 얻게 되는 정신적 상처를 의미한다. 프로이트는 트라우마를 일상적인 방법으로 다루거나 제거하기엔 너무 강력한 자극¹⁸⁾으로 정의한다. 트라우마는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어 의식되지는 않지만 환상이나 비합리적 행동으로 나타난다. 작품에서는 국가권력의 고문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한성삼이 술에 취해 개로 변하는 트라우마가 지속적으로 서술되는데 이러한 남편의 이상 행동을 바라보는 혜순의 눈을 통해 개인에게 국가 폭력이 만들어 낸 공포를 극대화하고 있다.

화장실에서 복도를 따라 거실로 굴러들어와 계속, 멍, 멍……. 개가 되어 주위를 기어 다니며 술 냄새를 풍기다가, 엉덩이를 내리고 꼬리를 흔들는 시늉을 한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멍, 멍, 당신, 성삼, 한성삼! 멍, 멍……. 당신, 정말로 개가 된 거야? 이게 무슨 일인지. 혜순은 이것은 성삼이도 누구도 아닌, 꿈속에서 튀어나온 기묘한 생물이라도 되는 듯이 한 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멍, 멍, 멍, 머엉, 머엉, 인간이 개의 흉내를 내고 있다. (상, 374쪽)

“무의미하지 않은, 자신이 갈구하는 저를 때려눕힐 폭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전 남산의 폭력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무의미한 죽음의 공포에 내던져졌습니다. 그걸 선생님의 폭력으로, 폭력이 아니라, 선생님의 발과 손바닥으로, 삽과 같은 손바닥의 일격으로 다시 저를 원래대로 되돌려주십시오. 선생님께 죽을 정도로 맞는다면, 목에 돌맹이가 되어 걸려 있는 남산에서의 김, 일……, 김, 김일담이 몸속

18) 서동욱, 『차이와 타자』, 문학과지성사, 2008, 97쪽.

으로 녹아내려 사라져갈겁니다…….” (하, 64쪽)

한성삼은 자신을 고문한 정보부로부터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유의미한 폭력을 선택한다. 자신에게 행해진 고문이 무의미한 폭력으로 인한 굴욕감을 주었고 그것이 자신을 개로 만들었다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공작 대상이었던 김일담의 폭력을 통해 그에게 용서를 받고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다시 일어서고자 했던 것이다. 고문 후유증으로 ‘개가 되는 한성삼의 트라우마는 환기된 고통을 통해 그의 내면에 잠재해 있던 문제를 직시하여 삶의 이유를 다시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작품은 한성삼의 고문 후유증과 극복을 통해 당시 국가권력이 행한 ‘폭력’이 허구적인 것이 아닌 실체임을 확인시켜주며, 권력의 파괴력이 개인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재확인시켜준다. 나아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주체성을 회복하는 작중인물을 통해 조국 통일의 국적인 조선적에 대한 작가의 염원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과거로부터의 행진』에서 한성삼에 대한 고문 트라우마의 형상화가 재일조선인을 향한 국가 폭력이 개인의 일상 속 파열에 미친 영향을 보여주었다면, 고재수의 환청은 미래에 대한 전망의 제시와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족과 고향 성묘를 하기 위해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한 고재수는 제주공항 활주로에서 무수한 뿔조각이 부딪히는 소리를 듣는다.

뿌드득, 뿌드득……. 들리는가. 활주로 아래 땅속에 묻힌 뿔조각의 육신 거리는 통증이. 거대한 제트기 바퀴의 중압에 짓밟혀 뿌드득, 뿌드득하고 부서지는 뿔조각의 신음 소리가. 어제까지는 귓속에 들리기는커녕 생각지도 못했던 제트기의 거대한 바퀴가 활주로를 질주하는 땅속에 대한 근심. 바퀴에 짓밟혀 부서지는, 겹쳐지고 서로 엉키는 뿔조각의 더 큰 신음 소리. 비명. (상, 95쪽)

전 이번 한 달 전에 후쿠오카에서 출발 제주공항 활주로에 제트기로 내려서면서 땅속에서 부서지는 무수한 뿔조각이 뿌드득 뿌드득 뼈적거리는

소리를, 그건 환청입니다만, 그래도 확실히 들었습니다…….(하, 263쪽)

공항 건물 지하 3층 밖에 펼쳐진 정뜨르의 땅속, 죽은 자들의 세계. 그 너머는 바다 속. 뿌드득, 뿌드득, 저승에서 들려오는 부서진 뿔조각이 뿔조각을 밟는, 뿔조각이 얽히고 서로 겹쳐져 희미하게 삐걱거리는 소리. 땅속 뼈 무리의 숨결. 자물쇠가 벗겨져 열린 채로 있는 유치장의 문 밖은 지하 공간으로 이어지고, 다시 그 건너 박명에 들여다보이는 어둠. 땅속의 저승 공간……. 고재수는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죽은 자들과 이야기하고, 죽은 자들의 행진을 보았던 것이다……. (하, 266쪽)

“(…중략…)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건 입이 기억이 땅속 깊숙이 죽은 자들과 함께 얼어붙어 있기 때문이야. 열려고 해도 열리지 않지. 유족들은 그 죽은 자들을 위해 슬퍼할 수도 울 수도 없어.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지금까지 반세기가 흘렀어. 정뜨르의 망자들을 파내야 함과 동시에, 제주도의 주민들은, 우리들은 동결되고 살해된 가사 상태의 기억을 풀지 않으면 안 돼. 좀 전에 겨우 4·3연구소가 생겼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조만간, 아직 먼 얘기겠지만, 정뜨르의 망자들을 지상으로 발굴해낼 날이 올거야. 오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태양의 햇살이 내리쬐는 지상으로 망자를 소생 시킨다…….” (하, 268쪽)

고재수가 들은 제주공항 활주로에 뿔조각의 울음은 과거 4·3학살의 현상이었고, 재일조선인이며 4·3학살의 유족인 고재수는 망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일담을 만나 국적 변경에 대해 이야기 하던 고재수 부친의 남동생은 4·3 당시 게릴라로 참가해 행방불명되었고, 자신은 제주 공항에서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고백한다. 이런 고백에 김일담은 그가 환청을 들었다는 데서 놀라워한다. 그리고 ‘망자를 지상의 햇빛 속에 소생 시킨다’는 말을 하며 고재수의 국적 변경이 그것을 실현시킬 힘에 한발짝 다가갈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김일담의 생각은 4·3의 현재성과 미래지향점을 언급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제주를 말살시키고자 했던 ‘제주 4·3사건’은 제주도에 가해진 국가 폭력의 잔인함을 담고 있다. 김석범에게 제주 4·3은 ‘이념으로서의 고향’이며 작품 창작의 원천인 곳에

서 발생한 잔인한 사실이다. 이에 4·3의 진상규명운동과 평화·인권을 앞장서서 펼쳐온¹⁹⁾ 자신에게 현재까지 正名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김석범은 작중인물 김일담의 입을 통해 4·3이 현 한국의 지배질서를 형성한 근원적 폭력에 해당 결과임을 말함과 동시에 강요된 침묵에 의한 해결의 어려움을 전달한다. 그리고 국적변경에 대해 고재수가 가진 소명의식을 통해 4·3의 해결이 현재와 미래와 과거의 연속 선상에 있음을 주지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김석범 소설 『과거로부터의 행진』을 대상으로 재일조선인들이 가진 조국의 의미를 한국 사회의 정치 철학과 연계하여 고찰해보았다. 한국현대사 속 집단주의가 만들어낸 무자비한 국가 폭력은 비단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재일조선인의 삶에도 어두운 과거사를 만들어냈음을 작중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자행된 폭력과 고문의 전략이 작중인물 ‘한성삼’의 정체성을 점점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개인의 무력함을 보여주고, 사회의 구조와 제도가 개인의 삶을 결정짓는 모순에 대한 비판의식을 보여준다.

남한 사회가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만든 국가정보기관은 실상 독재정권과 국수주의의 힘을 빌리고 집단의식으로 점철하여 재일조선인 사회에 파시즘적인 행위를 행한다. 김석범은 작품을 통해 이들을 부각함으로써 집단에 의한 국가 권력의 음모와 계략에 도구화된 재일조선인들의 삶과 함께 정체성 탐구와 자아 해방의 방식을 보여준다. 한국현대사의 어두운 일면에서 재일조선인에 경계인의 모습을 탐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작가가 던지는 실제 국가 정치 현실의 복잡미묘한 연관들, 즉 남한공권력의 자기과시와 반공 논리 등 과거사의 문제점을 현재

19) 김동윤, 「『화산도』의 힘: 투쟁과 평화」, 『제주작가』 54, 2016, 15쪽.

의 시점에서 포착해, 현실에서 갖는 의미에 대해 천착해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작품은 1970년대 유신체재하에서부터 빈발했던 ‘재일조선인 유학생 간첩’ 사건 등 시대상을 반영하여 재일조선인들의 국적 선택에 대한 내적 갈등의 모습을 그린다. 자신들을 향한 시대의 강요와 고난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재일의 삶을 긍정하려는 의지를 통해 재일조선인의 주체적 선택의 결과로서 국적의 의미를 강조한다. 『과거로부터의 행진』의 작중인물들은 모두 한국인, 조선인이라는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인물들이다. 김석범은 재일조선인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 현실을 거부하거나 현실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점을 작중인물 한성삼과 고재수의 최종 국적 선택을 통해 전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작가 김석범은 작품의 시작과 끝을 제주 4·3을 형상화하고 이를 ‘고재수’의 국적변경과 연결한다. 『과거로부터의 행진』은 ‘제주4·3연구소’의 설립과 끝나지 않은 제주 4·3의 문제와 해결을 거듭 언급한다. 그리고 4·3으로 인한 재일조선인 세대들의 모습을 통해 회복되지 못한 역사의 현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김석범의 문학적 표현의 획득은 다른 맥락에서도 조명될 수 있는 것이지만,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해서 따져볼 만한 의미를 갖는 문제일 것이다.

나아가 이것은 『과거로부터의 행진』이 작가 김석범의 제주4·3에 대한 근원적 문제의식을 함축하고 있는 작품임과 동시에, 한국현대사와 재일조선인의 관계를 탐색하는 작가의 고민 또한 공존하고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여, 김석범의 작품 세계를 폭넓게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석범, 김학동 옮김, 『과거로부터의 행진』, 보고서, 2018.
- 김동윤, 『『화산도』의 힘: 투쟁과 평화』, 『제주작가』 54, 2016.
- 김동춘, 「간첩 만들기의 전쟁정치: 지배질서로서 유신체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21호,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2.
- 김창후, 『(재일제주인센터 연구 총서 3) 4·3으로 만나는 자이니치』, 진인진, 2017.
- 김학동, 「김석범(金石範)의 비(非) ‘4·3문학’ 작품과 조국에 대한 애증의 형상화 양상」, 『일본학』 제46집, 2018.
- 문상석, 「박정희의 염원: 근대국가건설과 인간성의 개조 그리고 신민족 형성」, 『한국동양정치사상학회』, 2011.
- 박수현, 「1970년대 사회적·문학적 담론에 나타난 집단주의 연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제33권1호, 2014.
- 서동욱, 『차이와 타자』, 문학과지성사, 2008.
- 이 성, 「재일코리안의 현황과 미래」, 『통일인문학논총』 제52집, 2011.
- 윤건차, 박진우 외 역, 『자이니치의 정신사』, 한겨레출판, 2016.
- 윤송아, 「재일조선인과 분단의 지형학: 서승, 서준식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제73집, 2017.
- 한규석, 「집단주의-개인주의 이론의 현황과 그 전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0, 한국심리학회, 1991.
- 헤르트 홉스테드 외, 차재호·나은영 역, 『세계의 문화와 조직: 정신의 소프트웨어』, 학지사, 2014.

ABSTRACT

A Study on the *March through the Past* of
Kim Seok-beom's novel

Ko, Eun-kyung *

The major incident of march through the past, "The fabrication of spies for Korean-Japanese students," calls for a renewed exploration of the image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s a borderline in the modern history of Korea from the Yushin regime to the new military regime. Furthermore, the present life of a workman who has experienced the tragedy of modern history is portrayed through an narrative strategy, which reminds him of the author's consciousness.

Until now, Kim Seok-beom, who maintains his nationality as a Korean, portrays his belief in his country in his work. Therefore, the author's world of consciousness about his country of unification in this work has an important meaning in his novel.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which was created to realize freedom and democracy in South Korean society, actually carries out fascist acts in the societ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by borrowing the power of dictatorship and nationalism and by promoting collective consciousness.

By accusing them through their works, Kim Seok-beom shows the life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who have been instrumental in the plot and scheme of state power, as well as the way to explore their identity and liberate themselves. In the dark side of modern Korean history, Koreans in

* Jeju4 • 3PeaceFoundation Research Department Researcher

Japan are asked to explore the appearance of the guardians.

In this article, we can see that the author's subtle associations of the actual state political reality, such as the self-examination and anti-communist logic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re being examined from the present point of view and raised the need to reflect on the meaning of the Korean people living in Japan.

Key-words: Kim Seok-beom, collectivism, Korean Residents in Japan, Marching from the Past, April third Investigation Report

논문투고일: 2019. 12. 31.

심사완료일: 2020. 02. 02.

게재확정일: 2020. 02. 14.